

보도시점 2023. 5. 2.(화) 11:00
5. 3.(수) 조간

배포 2023. 5. 2.(화) 09:00

케이푸드(K-Food) 민관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글로벌 확산 이끈다.

-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해 농식품부·씨제이(CJ) 업무협약 체결
- 영세프 간담회에서 청년 의견 수렴
- 높아진 위상에 맞는 ‘한식산업 발전 전략’ 연내 발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한식 49.1% 뷰티 46.5% 등) <9년 연속> / 한국 연상 이미지 2위(k-pop 14.3% 한식 13.2%) <5년 연속>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인재 양성, 한식 식문화 전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어서 한식 영셰프(Young Chef)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영셰프(Young Chef) 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는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한식 산업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한식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1-2152)

